



열린 포항

2016년 4월호 통권152호

발간등록 75-502000-00010-08



밤과 봄

조현명

1년이 하루라면 밤을 봄으로 치겠네
하루를 열기위해 동트는
씨앗이 궁그는 때
밤은 그냥 어둡고 차가운 것만은 아니네
빛을 맞이하기 위한 구석구석에 놓인 서랍들이 열리고
은은하며 그득한 이야기들을 모으네
흥성거리는 사물들의 시장터
달빛과 잠에든 창들의 숨소리며 검은나무 춤추는 그림자
전설을 담고 지나가는 바람, 고양이들의 살금 발자국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밤안개와 속삭임들
하루가 1년이라면 봄을 밤으로 치겠네
한해를 열기위해 움트는
모든 것이 아직 감추어진 그때
봄은 아무에게나 오지만
정말이지 아무렇게나 오지는 않는 것이므로

조현명

1997년 《포항문학》으로 작품활동
2004년 《시경》 신인상 당선
시집, 「저녁나무」, 「모리라는말」
포항문인협회 사무국장

열린 포항

2016년 4월호 통권152호



창조경제 허브도시, 포항

Creative 포항

04 포항, 만화로 창조의 꽃을 피우다

특별기획

06 KTX 직결노선 개통 1주년



사람중심 행복도시, 포항

시민행복

08 신춘테마 - 우리동네 꽃동네

10 건강관리 - 대사증후군

미래를 여는 도시, 포항

미래 & 꿈

11 한동대학교 링크사업단



희망 있는 해양관광도시, 포항

동네방네

12 신광면 법광사지

스포츠

14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 포항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16 시정소식

17 의정소식

18 문화캘린더

19 문화산책

20 생활정보

21 상생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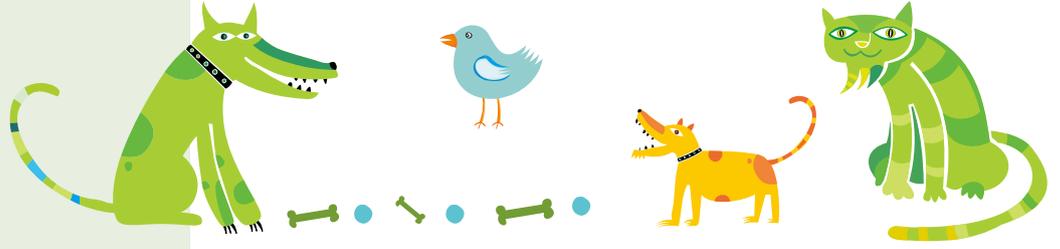
22 포항스토리텔링

23 독자 참여

표지설명

북구 기계면 봉계리 김연부 씨 농원은 온통 봄이다.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처럼... 리시안 셔스(Lisianthus)는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에서 최고의 예우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꽃이다.





포항, 만화로 창조의 꽃을 피우다

포은중앙도서관 만화자료실
웹툰창작체험관
창조만화문화제

창조도시 포항이 만화와 웹툰(web(웹)+cartoon(만화))을 통해 무한상상의 크리에이티브 도시 블랙홀로 급속히 빨려들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은 우리나라에서 '웹툰'이라는 특이하고도 유일한 형식의 만화제작, 유통기법을 만들게 되었고 창조경제 시대에 접어들면서 만화와 웹툰은 영화와 드라마, 게임, 음반 등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핵심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마디로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 Multi Use)로 대변되는 문화 콘텐츠산업의 중심에 만화가 부동의 위치를 잡고 있다. 포항시는 이런 문화변화의 흐름을 포착해 만화를 창조도시 도약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잘 활용하고 있다. 만화천국 포항 트렌드의 진원지는 새로 지은 포은중앙도서관.

포은중앙도서관은 만화자료실이라는 특성화자료실을 구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비지원을 받은 웹툰체험관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자신감을 얻어 4월 '창조만화문화제'를 개최해 만화산업을 역동적인 창조에너지로 활용한다.





폭발적인 인기 누리는 '만화자료실'

2015년 10월 개관한 포은중앙도서관에서 가장 인기를 끄는 곳이 바로 만화자료실. 특히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찾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차고 넘치며 그런 시민을 위해 6천800여권의 만화책이 준비되어 있다. 평소 주말에는 1300명 이상 몰려 90석의 지정좌석은 아예 엄두도 못내고 자료실 바닥에 앉아 만화를 열독한다. 평일에도 겨울방학 때는 평균 700여명이 찾는다.

이처럼 인기가 높은 것은 전 세대를 아우르도록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만화책이 있기 때문이다. 포은중앙도서관 만화자료실이 시민들과 도서관을 연결해주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만화창작인력 양성! '웹툰창작체험관'

포은중앙도서관은 지난해 한국영상진흥원으로부터 웹툰창작체험관으로 지정돼 3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창작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웹툰 관리시스템 등 모든 시설을 갖춰 웹툰도시 포항의 틀을 갖춰가고 있다.

이미 어린이반 10명, 일반인반 10명을 대상으로 무료 웹툰교실을 열어 만화 및 웹툰 창작에 대한 꿈을 가진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그간 만화 창

작법이 어려워 접근하지 못했던 어린이나 일반인에게 쉽게 만화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의와 태블릿 PC를 활용한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3월말까지 진행한 성인반은 11주 프로그램으로, 수강열기도 뜨겁다.

창조도시 포항의 새 문화축제! '창조만화문화제'

이처럼 만화라는 장르가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모으자, 포항시는 도서관을 신나는 문화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해 4월에 '창조만화문화제'도 마련했다. 포은중앙도서관은 오는 4월 22일부터 사흘 동안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창조만화문화제'를 열어 만화라는 특성과 콘텐츠를 통한 대중지식문화사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경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 문화제에서는 '우리시대 만화가 10인전'을 비롯 웹툰 원작영화가 상영되며 하일권 웹툰원작 '안나라 수마나라'가 연극으로 무대에 오른다. 특히 포항출신의 인기만화가 이현세씨와 독자와의 만남이 이뤄지며 만화 공모전과 만화OST 콘서트, 만화캐릭터 그리기, 나만의 캐리커처 등 시민참여행사를 통해 만화가 시민 속으로 찾아간다.

문화제와는 별도로 4월 6일부터 29일까지 기획만화 전시회도 계획되어 있다.

포항~서울 간 KTX직결노선 개통 1주년

3월 31일은 KTX 포항~서울 직결선 개통 1년.

우려했던 빨대효과는 미미했고 대신 포항은 수도권과 2시간대로 이어져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에 들어왔다. 이와 함께 KTX는 포항이 철강도시 이미지를 벗고 물류중심 해양관광문화 도시, 첨단과학도시로 변신하도록 '초고속'으로 끌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기업체의 출장 풍속도도 달라져 업무패턴이 크게 바뀌었다.



하루 평균 4천700여명이 KTX 포항역 이용

그동안 교통불편에 따른 지역민과 수도권관광객의 '갈증'이 간절했던 탓일까? 승객수는 예상(1일 3천 200명)을 훨씬 뛰어넘어 하루 평균 4천700명이 포항역을 이용하면서 이용객수는 개통 7개월만인 지난해 11월초에 100만명을 돌파했다. 여름성수기에는 KTX승객만도 하루 8천여명이 역에 몰려든다. 따라서 증차와 공급좌석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말과 휴일 '표구하기'도 힘든 실정. 반나절 생활권으로 인해 수도권~포항 간 업무통행이 크게 증가했고, 당일치기 여행도 늘고 있다.



KTX열차는 하루 20회 포항과 서울을 오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시간 30분이다. 기존 5시간 20분 걸리던 새마을열차보다 3시간, 고속버스보다는 1시간 30분가량 크게 단축됐다. 또 1시간 20분 소요되던 포항~동대구 간도 35분대로 줄어들었다. 타 지역과 포항 간 이동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교통혁명'이 실현된 것이다.

당초 우려되던 의료와 쇼핑분야 '빨대효과'도 없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KTX를 통해 수도권 쇼핑과 병원이용을 하는 승객은 3.3%에 불과하며 출장, 가족·친지방문 등의 목적이 주류를 이뤘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이어지는 관광객들

오히려 KTX를 타고 포항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찾는 수도권을 비롯한 외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어 포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포항의 유명 관광명소인 영일대해수욕장,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죽도시장 등에는 주말과 휴일을 중심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KTX열차를 타고 달려오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포항시는 KTX승객을 위한 시티투어버스의 다양화 외에도 울진과 경주, 울릉 등 인근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포항 직결노선이 개통된 뒤 지역 기업체의 업무패턴도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KTX 개통 전 서울 출장을 위해 고속버스나 새마을열차를 이용할 경우 5시간씩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새벽차를 타더라도 밤늦게 도착하거나 아예 1박 2일 출장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KTX 개통으로 시간낭비가 크게 줄고, 객차 내에서 회의진행 등 자투리 시간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해졌다.



신촌테라 우리동네 포항동네

창조마을만들기
공동체정원사업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우리마을 골목에도, 도시에도 봄이 왔다. 겨우내 머물렀던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새 단장하니 마음도 몸도 가볍다.

포항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조도시'. 그래서 시민을 위한 정책 하나하나가 피부에 와 닿아 살갓까지 따듯하게 하는 체감행정이 수두룩하다. 이 가운데서도 올해 포항시가 주민을 위해 역점을 두고 펴는 **창조마을만들기+공동체정원사업+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이 삼총사는 동네를 밝게, 도시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대주.

특히 이들 사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반영하고 디자인도 하는 등 주민자치 실현의 진정한 모델이라는 것. 이처럼 시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지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것이 창조도시 포항의 봄소식이다.



▶창조마을만들기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행복한 창조도시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력하고 있는 포항시는 읍면동별 특색 있는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에 올해부터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한다.

시는 그동안 각종 사업들이 관위주로 추진되면서 시민참여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라 주민과 각종 기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새로운 볼거리를 조성해 창조마을의 모델케이스를 조성할 방침이다. 그래서 창조마을만들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도시환경 개선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오천읍사무소가 용산리 일대에 설치한 코스모스테마공원과 상대동 젊음의 거리 소공연장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새로운 명소로 탄생했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키로 해 올해 우리동네 곳곳에 들어설 창조마을에는 톡톡 튀는 시민들의 창조적 발상이 밀거름이 될 것이다.



오천 용산 코스모스 단지조성

▶공동체정원사업

포항시는 올해 마을정원을 조성해 지역사회 명소로 키우고 일자리도 만드는 '마을공동체정원사업'을 주민 참여형으로 본격 추진한다. 마을공동체정원사업은 지역사회에 텃밭이나 정원을 조성하고 마을공동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 과정에서 일자리도 만들어 지는데 포항시가 행정자치부의 마을공동체정원사업 시범지역으로 뽑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 중심의 '새마을 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하고 두호동 산 31번지 일대 약 2만㎡에 공동체 텃밭 및 꽃밭, 잔디광장 등 정원을

조성할 방침. 또 꽃밭을 중심으로 원두막 등 쉼터와 소규모 둘레길, 작은 연못을 만들어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 특히 이번 사업은 공무원과 주민으로 구성된 정부3.0 국민디자인단이 사업 설계를 주도해 주민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진다.



작은 공원과 작은 도서관이 잘 어우러진 대도동 어린이공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도심재생에도 주민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된다.

포항시는 지난 3월 21일까지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데 이어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돌입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업은 도심재생에 주민들의 역량을 그대로 반영하기로 하고 주민과 함께 소통·공감하기 위해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마을사업과 창조도시사업 2개 유형으로 실시되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컨설팅 지원과 함께 마을사업은 단체별 최대 500만원, 창조도시사업은 단체별 최대 2천만원이 지원된다.

이 3가지 사업을 계기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창조도시 포항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내 마을을 내 손으로 가꾼다는 시민운동이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벽화로 한층 밝아진 용흥고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대사증후군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복부비만(내장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 등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대사증후군이 되면 심근경색과 뇌졸중 같은 질병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대사증후군 진단기준

아래 5가지 중 3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 복부비만(내장지방형 비만) : 허리둘레 - 남성 90cm 이상, 여성 85cm 이상
- 이상지질혈증 : 중성지방 150mg/dl 이상, 좋은 콜레스테롤(HDL) - 남성 40mg/dl 미만, 여성 50mg/dl 미만
- 고혈압 : 최고혈압(수축기) 130mmHg 이상 / 최저혈압(이완기) 85mmHg 이상
- 고혈당 : 공복시 혈당 : 100mg/dl 이상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식이요법

- 아침식사를 함으로써 과식이나 간식 섭취를 예방한다
- 규칙적으로 적당량의 식사를 천천히 씹어 먹도록 한다
- 채소, 생선, 콩류로 구성된 한식 식단이 좋다
- 염분 섭취를 줄이고 싱겁게 먹는다
- 흰쌀이나 밀가루 대신 탄수화물이 적은 현미나 잡곡을 먹는다
- 지방과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을 줄인다
-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버섯, 콩, 해조류를 충분히 먹는다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생활 및 운동요법

- 유산소운동을 주 5회, 하루 30분 이상 실천하도록 한다
- 근력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높인다 (복근운동, 팔굽혀펴기 등)
- 일상 생활 속에서 신체 활동량을 늘린다
- 적정 체중을 유지한다
- 금연과 더불어 알콜 섭취를 줄인다
- 하루 7~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 스트레스를 줄인다



대사증후군 클리닉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에서 연중 운영하며, 매주 화요일, 금요일은 뱃살 free 행복도전교실을 운영하여 한의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전문가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에어로빅, 댄스도 하고 있다.
문의: 남구보건소(☎270-4081), 북구보건소(☎270-4182)



한동대학교 LINC사업단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한동대학교 LINC사업단은 링크사업을 통해 지역대학 특성화 촉진, 지역의 우수인재 유치 및 지원강화 등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체제 구축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동대학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사업단 출범식

글로벌에서 로컬중심으로 중심축 옮겨 지역 섬기기 나선 한동대학교

최근 몇 년 전부터 부쩍 한동대학교(총장 장순홍)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눈부시다.

개교 20주년을 넘긴 한동대학교이지만 솔직히 그동안 지역사회와 피부에 와 닿는 살가운 협력은 드물었다. 그러나 변화의 조짐은 지난 2014년 장순홍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관측됐다. 장총장이 대학발전 10대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에 주력했던 대학의 관심을 지역중심, 로컬라이제이션(Localization)으로 키를 돌리면서 학교의 <지역 속으로~>가 눈에 띄고 있다.

그 대표적인 통로가 바로 한동대학교 링크(LINC)사업단이다. 교육부가 시행·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지난해 5월, 한동대가 엄격한 심사 끝에 추가 선정되면서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인재양성은 물론 기술개발로 지역의 경제, 문화발전을 적극 돕고 있는 것이다.

한동대 링크사업단은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가지면서 포항의 부족한 문화 콘텐츠 개발뿐 아니라 해양·역사 관광, 휴먼케어 산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선 사업단은 학교가 가진 글로벌 자산과 사물인터넷(IOT)과 정보통신기술(ICT), 핀테크, 인문사회 청년사업 등 대학이 원천보유한 강점을 중심으로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더욱이 모든 교수진은 물론 학부가 총동원돼 사업 성공을 위한 도우미 역할을 한다. 사업단은 출범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ICT 융합 콘퍼런스를 열었으며 지난 2월에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한데 묶어 사흘간에 걸쳐 <한동LINC 산학협력 엑스포>도 열었다.

김기석 한동대 LINC육성사업단 단장은 “사업단의 비전은 지역밀착과 글로벌 진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신 모델을 만드는 것이지만 우선 한동대가 제일 자신 있는 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지역과 협력해 포항 지역민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고 토론하는 한동대 링크사업단이야말로 포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고마운 이웃이다.



한동대학교 본관

신광면 법광사지

法廣 寺址

古壁丹青剝
經營歲月深
鳥啼人正靜
花落葉成陰
芳草沿階綠
清風入樹陰
別峯啼謝豺
忽起故山心

옛 벽의 단청은 떨어져 나가고,
경영된 세월은 깊구나.
새는 지저귀나 사람은 참으로 고요하고,
꽃은 지고 잎은 그늘을 이루었네.
향기로운 풀이 섬돌을 따라 짙고,
맑은 바람은 나무그늘에 불어오네.
다른 봉우리에서 멀어지는 이리 소리,
문득 옛 산의 마음을 일깨우네

김시습의 <신광현의 법광사에 묵으며> 전문

법광사지(法廣寺址)는 사적 제493호로 신광면소재지에서 나와 상음리 마을길을 따라 약 3km 가까이 가면 법광사 주차장에 닿는다. 주차장 개울 건너가 법광사이고 뒤로 돌아가면 법광사지가 있다.

15세기에 매월당(梅月堂) 김시습도 묵어가며 <신광현의 법광사에 묵으며>라는 시를 남겼던 법광사터를 춘삼월에 다시 찾아보니 아늑한 평화가 세파에 지친 몸뚱이를 꼭 안아준다. 재잘재잘거리는 산새 소리와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도 묘한 공명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신광면 상읍리 비학산 들레길 초입에 지금 법광사(法廣寺)라는 절이 있다. 하지만 이 절은 지난 1952년 새로 세운 절로, 신라 진평왕 때 창건한 옛 법광사와는 다르다. 사적 제493호로 지정된 법광사지(절터)는 지금의 법광사를 뒤편으로 돌아가면 그 어마어마한 흔적을 드러낸다. 절터 전체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로도 지정되어 있다.

옛 법광사는 신라 26대 임금 진평왕 때 세워진 사찰이다. 창건 당시에는 갖가지 보배로 화려하게 장식하여 왕궁보다도 더 화려했으며, 건물의 칸수를 모두 합하면 525칸이나 되어 불국사와 맞먹는 수준이었다. 원효와 의상이 주지를 지낸 절이라고도 알려진 이 엄청난 규모의 절이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철종 때에 화재로 소실되어 폐허가 되다시피 했으며, 고종연간에 몇몇 건물을 증건한 바 있으나 다시 화재를 당해 절이 완전히 없어진 뒤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다 한다.



연화석불좌대

원효가 왕명에 의해 창건했다고 전하는 법광사는 당시에는 대웅전과 2층 금당, 향화전, 5층 석탑 등 525칸이 넘는 큰 사찰이었지만, 지금 법광사지엔 석가불사리탑, 연화석불좌대, 쌍두귀부, 당간지주와 조선 영조시대에

세운 사리탑중수비 등 몇몇 석조 유물만 남아 옛 영광을 보여주고 있다. 법광사지는 지금도 문화재청의 발굴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법광사터로 가는 길은 비학산으로 오르는 등산로 입구이지만 본격 영농철을 피해 찾는 것이 좋다. 한창 농사를 지을 때는 파랑게 자란 발작물이 땅을 덮어 밭 곳곳에 묻힌 석물을 찾아다니다 보면 자칫 농작물을 밟기가 쉽다. 농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의 4월 꽃철, 지금이 법광사 절터로 나서기 제격이다.



쌍두귀부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돋움하는 포항

포항시가 생활스포츠 메카를 향한 1시민 1종목 생활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윈드서핑 등 해양스포츠 11종목 포항스포츠아카데미 수강생을 4월부터 모집한다.

천혜의 해양조건과 지리적 조건을 두루 갖춘 포항은 주 5일 근무로 인한 건전한 여가 선용

및 다양한 해양 레저스포츠 체험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 평소 접하기 힘든 딩기요트, 조정, 스킨스쿠버, 윈드서핑, 서핑, 수상스키, 카이트보딩 등 11개 종목을 개설해 해양스포츠 저변을 확대시킨다.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에 따르면 포항에는 해마다 평균 4천 명 이상이 해양스포츠를 체험하는 등 해마다 동호인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청소년 요트세일링을 개강하고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체험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금년에는 해양스포츠 전문 강사를 채용해 양과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문화와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과 영일만 친구 요트승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은 포항스포츠아카데미로 신청가능하며, 스포츠아카데미 회원 수탁을 희망하는 민간 시설체육시설은 포항스포츠아카데미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교육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며, 장소는 영일대해수욕장, 송도, 죽천해수욕장 및 형산강 일원이며, 카이트보딩은 7만원/2일, 딩기요트와 윈드서핑은 6만원(청소년 3만원)/4일, 수상오토바이는 10만원/2일, 카약과 용선은 3만원(청소년 2만원) 등이며 종목별로 차이가 난다.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 운영한다.

문의 : 포항해양스포츠아카데미 ☎282-2223, 홈페이지(www.phseasports.or.kr)

포항스포츠아카데미 ☎272-7330

청소년 요트아카데미

포항시는 교육청, 포항시생활체육회와 공동으로 3월부터 관내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청소년 요트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요트를 체험하여 바다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체력을 강화하고 모험과 협동, 도전정신으로 성취감을 조성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건강한 청소년을 양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바다에서의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요령 등 안전교육과, 요트를 조종할 수 있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병행하며 4주간 주 2회 교육을 실시한다. 요트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 대하여 지속적인 요트 세일링을 할 수 있도록 클럽활동을 지원하고, 외국의 세일링 클럽과도 교류활동을 통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PYSA(Pohang Youth Sailing Academy) 챔피언 클럽을 창설할 계획이다.

청소년 요트아카데미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하며,

평일은 방과 후 토·일·공휴일에는 전일 실시한다.

문의 : 포항시생활체육회 ☎272-7330, 244-7330

포항해양스포츠 아카데미 ☎282-2223



포항시, 153억원 규모 투자유치 성과

(주)케이씨스틸, (주)천마개발, 방산(주)영남지사 등 3개 기업과 MOU체결



(왼쪽부터) ㈜케이씨스틸 차원석 대표, ㈜천마개발 김효경 대표이사, 이강덕 포항시장, 방산(주) 방순만 대표이사

포항시가 2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철판표면가공업의 ㈜케이씨스틸(차원석 대표), 목재사업의 ㈜천마개발(김효경 대표이사), 내화물 제조업의 방산(주) 영남지사(방순만 대표) 등 3개 기업체와 153억원의 사업투자자 47명의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은 이강덕 포항시장, 시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포항시의 신속한 행정지원으로 빠른 기간 내 공장이 설립되도록 하는 투자협약을 맺었다.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에 공장설립을 하는 ㈜케이씨스틸과 ㈜천마개발은 40,042㎡의 동일한 부지에 제조시설 2,021㎡와 3,479㎡를 각각 설치하고, 3D 패턴무늬의 철판제품 생산과 금강송을 활용한 목재사업을 추진한다.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서 고부가가치 제품개발을 위해 기술연구를 하고 있는 ㈜케이씨스틸은 기계설비 등에 110억원을 투자하고 27명의 고용인원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과 엘리베이터 등 건설자재를 제공할 계획이며, 미주하이텍 및 중국기업체와 사전구매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천마개발은 부지매입과 목재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등에 28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인원을 채용해 문화재복원사업, 한옥마을

조성, 조경사업 등에 쓰여질 금강송 원목을 제품화해 판매처에 제공할 계획이다. 북구 신광면 안덕길에 위치한 방산(주) 영남지사는 제조 시설 2,740㎡ 규모에 15억원을 투자하고 10명의 인원을 채용해 해외에서 1차 가공된 비금속 광물을 내화물 부원료로 생산해 포스코캠텍에 납품할 예정이다.

㈜천마개발 김효경 대표이사는 “우수한 철강산업의 입지조건과 도로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포항시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기쁘다”며 “2018년에는 ㈜케이씨스틸과 함께 매출액 950억원과 고용인원도 140명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사업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번 MOU 체결에 있어 포항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민선6기 시정운영 슬로건인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과 ‘창조도시 포항’의 이미지를 담은 샘플제품을 포항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투자유치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체에서 지역의 우수한 산업인력을 우선적으로 고용되도록 하고, 공장건축 시에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장비가 사용되도록 기업체와 협의하겠다”며 “최근 철강산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포항지역에 투자를 결정해주신 기업체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포항시의회, 201동경호 사고수습 대책본부 방문

유관기관과 공조체제 강화, 사고수습 내외국인 동등한 처우 당부

포항시의회는 실종된 지 나흘 만에 호미곶 앞바다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201동경호 사고 수습 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이철구 의장과 박승훈 부의장 등 시의원들은 3월 4일 구룡포수협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찾아 집행부로부터 어선 침몰 경위와 사고 수습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철구 의장은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해 수색활동을 강화해줄 것과 사고수습에 있어 외국인과 내국인의 처우를 동등하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

제227회 임시회,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과 기능 확대 촉구 결의



제227회 임시회에서 포항시의회(의장 이철구)는 지난 2월 16일 포항 이전이 확정된 동해안발전본부의 조기 이전을 촉구하는 ‘경상북도 동해안발전본부 조기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신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환동해’ 경제권 선점과 도청이전에 따른 100만 동남권 지역민의 소외감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 내 포항에 임시청사를 마련할 것, 100만 동남권 지역민의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해양발전을 선도하면서 새 역사를 열어가기 위해 제2청사 수준의 규모와 기능으로 확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16. 4. 1 ~ 22

터키, 그 찬란한 문화와 문학의 세계

기간 2016. 4. 1(금) ~ 4. 22(금), 매주(금)
총 4회(10시~12시), 일반 40명
장소 포은중앙도서관 배움1터
강사 이난아 계명대학교 교수
내용 제1강 터키의 심장 이스탄불 기행
제2강 이스탄불 문학관 기행 <오르한 파묵의 순수박물관>
제3강 터키, 유네스코 문화유산1
제4강 터키, 유네스코 문화유산2
접수 3. 22(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문의 시립도서관 ☎270-4612



2016. 4. 2

캐릭터 가족체험공연 “버블매직쇼”

부제 : 겨울왕국환타지휘날래

기간 2016. 4. 2(토)
시간 13시, 15시
장소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티켓 정상가 20,000원
예매시 10,000원(전체관람가)
문의 ☎1544-2486



2016. 4. 2 ~ 3

**번개맨의 비밀4
<번개맨과 비밀의 문>**

기간 2016. 4. 2(토) ~ 4. 3(일)
시간 4. 2(토) 11시, 14시, 16시 30분
4. 3(일) 11시, 14시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VIP석 55,000원, R석 44,000(24개월 이상)
문의 ☎1544-1555



2016. 4. 14 ~ 7. 3

신비로운 동화의 세계 전시

기간 2016. 4. 14(목) ~ 7. 3(일)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1, 2, 3, 4 전시실
내용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 및 작품 전시
문의 시립미술관 ☎250-6024



2016. 4. 28

미술관 음악회 “MUSEUM & MUSIC”

기간 2016. 4. 28(목)
시간 11시~12시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로비
문의 시립미술관 ☎250-6024

2016. 4. 16 ~ 17

어린이난타

기간 2016. 4. 16(토) ~ 4. 17(일)
시간 4. 16(토) 11시, 14시, 16시 30분
4. 17(일) 11시, 14시
장소 포항시청 문화동 대잠홀
티켓 VIP석 50,000원/S석 40,000원
A석 30,000원 (12개월 이상)
문의 ☎02-738-8289



2016. 4. 29 ~ 30

연극 <늘근도둑이야기>

기간 2016. 4. 29(금) ~ 4. 30(토)
시간 4. 29(금) 20시 / 4. 30(토) 15시, 18시
장소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R석 55,000원/S석 44,000원
A석 33,000원(만 13세 이상)
문의 ☎1599-8426



한국 구상미술의 거목, 초헌(草軒) 장두건 화백 그의 세계를 엿보다

2016. 1. 14 ~ 2017. 1. 8

초헌 장두건 상설전

장소 포항시립미술관 초헌 장두건관

작품 유화 6점



초헌 장두건 화백은 화단의 전환기라 할 1918년 포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일제의 전시동원체제가 강화되던 1937년 일본에 건너가 미술에 입문한다. 애초에는 문학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이었으나, 소년시절부터 미술에 재능과 흥미를 보였던 선생은 결국 태평양미술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미술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3년 만에 메이지대학 전문부 법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틈틈이 미술연구소에 나가 미술공부를 계속한다. 해방 후 서울에서 교편을 잡았던 선생은 전쟁의 혼란이 찾아들 무렵이던 1957년 미술수업을 위해 다시 프랑스행을 결행한다. 그리고는 파리 아카데미 드 라 그랑드 쇼미에르와 에콜 데 보자르에서 수학한다. 유학중 프랑스 관전(官展)인 '르 살롱'전에 출품하여 특선을 하기도 한 선생은, 1960년 귀국한 이후 수도여자사범대학, 성신여자대학교, 동아대학교 등에서 미술교육자로서, 그리고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지닌 화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

2009년 선생은 고향의 미술관 건립을 귀히 여겨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지니는 소중한 작품들을 기증하였다. 포항시립미술관은 선생의 기증 정신을 기리고자 장두건 선생의 호를 따서 '초헌 장두건관'을 마련하고, 선생의 작품을 상설전시한다.

선생의 혼이 깃든 역작들로 이루어지는 전시는 선생의 예술세계를 고향의 시민은 물론 후학들을 위해 널리 알리고자 마련하였다.

장두건 선생은 2015년 6월 3일 영면(永眠)하였다. 이번 전시는 그동안 기증한 작품과 영구 임대한 작품 중에서 꽃의 소재로 제작한 작품들로 꾸며졌다. 도식적이면서 선(線)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다.故 장두건 선생이 남긴 작품들과 업적은 우리 지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포항시립미술관 2층에 마련된 '초헌 장두건관'에는 앞으로 선생의 주요작품과 자료를 지속적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나아가 선생과 선생의 작품세계와 관련된 전시를 옴으로써 우리나라 근·현대미술에 관한 미술관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장이 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포항시 유망강소기업 모집

모집공고 2016. 3. 23(수)
 사업설명회 2016. 3. 30(수) 15:00, 포항TP 다목적실
 접수기간 2016. 4. 1(금) ~ 4. 15(금)
 접수 포항테크노파크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문의 강소기업육성과 ☎270-3565
 포항테크노파크 ☎223-2229/2398

사전 투표

4월 13일에 투표할 수 없다면
 4월 8일(금) ~ 9일(토) 미리 투표 가능
 투표시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장소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에 갈 때 신분증 필히 지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문의 포항시남·북구선거관리위원회
 남구 ☎256-3939, 북구 ☎254-3939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

개시 2016. 3. 31(목)
 내용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출산장려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신청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건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처리(기존방식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각각 1장씩 여러 건 작성해야 함)
 문의 출산보육과 ☎270-2991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안내

기간 연중
 대상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교 이하) 아동 및 가족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한 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중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
 서류 없음
 내용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양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ex.건강검진, 예방접종, 기초학습방문지도, 문화체험활동, 부모교육 등) 아동과 가족의 욕구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실시
 홈페이지 <http://kkph.dreamstart.go.kr/>
 문의 출산보육과 ☎270-3073~8

201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3인 직장 건강보험료 88,428원)
 예외지원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인신생아, 새터민산모, 미혼모 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단,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5인 직장 건강보험료 143,510원)만 신청 가능!
 접수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 출산후 30일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2주간(단태아의 경우)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 제공 • 산모의 영양관리, 아기위생 관리, 청소 및 세탁 등 • 서비스 총 가격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이용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남구보건소 ☎270-4205
 북구보건소 ☎270-4255

환경해 중심 창조도시 포항! FUN FUN 4월의 건강을 걷다

일시 2016. 4. 12(화) 10:00 ~ 12:00
 2016. 4. 23(토) 10:00 ~ 12:00
 대상 걷기 건강리더 및 참여를 원하는 시민
 장소 환호해맞이공원(출발장소 - 공원 내 폭포 앞)
 구간 공원 내 폭포 앞 → 환호공원 산책로 → 공원 내 폭포 앞(1시간 소요 예상)
 준비 간편한 복장 및 운동화 착용
 내용 효과적인 걷기 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걷기 실천, 길거리 쓰레기 줍기
 문의 북구보건소 ☎270-4152~3, 4199

2016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안내

대상자 12월 결산 법인(2015년 귀속 법인소득)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의 소재지)
 방법 위택스 전자(파일)신고·납부 또는 지자체 방문신고·납부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co.kr)의 안내페이지로 이동
 문의 남구세무과 ☎270-6292~3
 북구세무과 ☎240-7267~8

일과 삶의 행복한 균형! 전일제 ⇒ 시간제 전환 근무 허용

요건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제도' 도입 사업주
 혜택 인건비(12만원~20만원) + 간접노무비(20만원) + 대체인력(60만원)
 문의 포항고용센터 ☎280-3051

난폭·보복운전 집중 단속 및 수사

대상 도로교통법 제46조의 3(난폭운전 금지) 신설
 내용 1. 난폭운전 유형
 •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보복운전 유형
 • 뒤따라오면서 추월하여 차량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 사고가 났었는데 이유를 뒤쫓아가 고의로 충돌하는 행위
 ⇨ 형법상 상해, 협박, 폭행, 손괴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 ※위반시 특수상해 : 1년 ~ 10년 징역,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 포항남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240-8254, 8240
 포항북부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250-0254

2016년 안보사랑 콘테스트 안내

기간 2016. 3. 14(월) ~ 5. 2(월)
 분야 안보홍보 관련 영상, CM송, 포스터, 글짓기
 시상 총 상금 2,160만원, 경찰청장 상장 43명
 참여 공모전 홈페이지(www.anbosarang.co.kr) 참조
 공고 2016. 5. 25(수)
 문의 포항남부경찰서 보안계 ☎240-8391

봄나들이 명소 경주엑스포공원에서 만나요

경주엑스포 봄맞이 상시개장

경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경주타워'가 위치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봄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 경주엑스포는 3월 5일부터 경주엑스포공원 상시개장을 시작했다. 가족과 어린이들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부터 연인들을 위한 야간 개장, 고품격 문화공간 경주 술거미술관에 더해 아름다운 자연과 산책길 까지 모든 것을 갖춘 경주 엑스포공원 여행을 미리 떠나본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에듀테인먼트

쥬라기 로드, 한민족 문화관, 신라문화역사관 등은 이미 경주엑스포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의 많은 사랑을 받은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이들 전시에 체험 요소를 보강해 관람객 친화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또한 경주타워 전망 2층에는 MBC에서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선덕여왕'의 의상, 소품, 캐릭터 등을 전시와 체험형식으로 꾸민 '선덕여왕 속으로' 전시를 통해 선덕여왕의 일대기를 보여줄 계획이다.

최첨단 기술의 ICT 융복합 체험 프로그램

세계 최고의 석굴사원인 '석굴암'을 HMD 기술과 스토리텔링 전시기법을 통해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석굴암 HMD(Head Mounted Display) 트레블 체험관'은 마치 실제 석굴암 내부를 걸으며 부처님의 웃음을 만지는 듯한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비단길·황금길-Golden Road21'은 샌드 인터랙티브, 사막의 협곡, 270도 서클비전 등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품격 문화 콘텐츠와 함께

지자체가 만든 공연 최초로 상설화에 수출까지 성공한 최고의 너머벌 퍼포먼스 플라잉은 이번 상시개장에서 이야기의 전개와 무대, 안무와 무술을 한층 업그레이드하여 관람객을 맞는다.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무용극 '바실라'도 업그레이드된 볼거리로 공연을 선보인다. 이 밖에도 시즌별 콘텐츠로 문화장터 아리랑 난장(4월), 패밀리페스티벌(5월), 워터 위페스티벌(7월 말) 등을 통해 만남과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추천공연

2016 정동극장-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동기획공연
<바실라> 더욱 강렬하게, 아름답게 돌아오다!



<공연 일정>

- 공연일시
3월 23일(수) ~ OPEN RUN
월-토 오후 7시 30분
- 공연장소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문화센터
- 공연장 문의 및 예약
정동극장 www.jeongdong.or.kr
☎054-740-3800



2006년도까지 현재 포은중앙도서관 자리에 포항시청사가 있었다

2007년도 포항시청이 덕수동 시대를 마감하고
대이동으로 이전, 새로운 신청사 시대를 연 이후!
구. 포항시청사는 새로운 시민 문화생활의 중심인
포은중앙도서관으로 개관했다.



1971년 포항시청사



2006년 구. 포항시청사



2016년 포은중앙도서관

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 시정퀴즈

사적 493호로 지정된 이 절터 전체는
경상북도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비학산 등산로 입구에 위치하며,
열린포항 2016년 4월호 동네방네
코너에 소개된 이곳은 어디일까요?



3월호 추첨에 당첨되신 분은
이재영(삼흥로), 이신자(충북 청주시), 박태진(경기도 의정부시)
박정은(대잠동), 이찬분(대송면), 유경선(지곡로), 현재호(호성로)님입니다.



포항의 관광명소를 담은 재미있는 사진과 짧은 글을 보내주세요.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잠깐의 휴식을
가져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재미있는 사진과 글로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출 (이권래님, 두호동)



봉좌산 뉘엿뉘엿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마음의 여유를 가지다 (김영철님, 학잠동)



호미곶 옆 방파제 바닥그림 위에서 찰칵~^^ (이혜경님, 오천읍)

'그때 그 시절에는...'에서는 포항의 숨은 역사를 찾습니다.

역사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역사 속에 잠들어 있는 한 장의 사진이 현재에 응답하는 순간, 역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의 포항을 있게 한 과거 포항의 향토상을 담은 사진을 찾습니다. 시민들이 포항의 변천사를 알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시정퀴즈'와 '손바닥 세상'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름과 주소, 사진과 사진설명을 기재해 메일을 보내주시거나 우편으로 4월 10일까지 보내주세요.
정답자를 추첨하여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보내실 곳 37683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시청로1(대잠동) 포항시청 홍보담당관실 열린포항 편집담당자 앞
- 전자우편 kamkam00@korea.kr [열린포항]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054) 270-2232~4, www.ipohang.org로 신청해주세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동해바다
KTX 타고 포항으로 놀러오세요.



호미곶면승격
30주년기념

제8회 호미곶 돌문어 축제

2016. 4. 22(금), 23(토), 24(일)
 호미곶해맞이광장 일원



주최 : 호미곶돌문어축제추진위원회
 주관 : 호미곶면선주협의회 (연안어업자율관리공동체)
 후원 : 경상북도, 경상북도의회, pohang, 포항시의회
 호미곶면사무소, 구룡포수협, 구룡포농협
 호미곶면문화체육회, 호미곶면개발자문위원회

● 축제추진위원회 (054)284-0575 ● 호미곶면사무소 (054)270-6681 ● 체험예약·문의 010-3534-9994